

## 사회복지인 화합 · 협력의 장



▲제1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사회복지인 한마음축제가 오는 11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모습.

### 오는 11일 제1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사회복지인 한마음축제도...10개팀 열띤 경연

제주 사회복지인의 화합과 협력의 장인 '제1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사회복지인 한마음축제'가 오는 11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우근민 제주지사와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단체 종사자 및 생활(이용)인, 자원봉사자, 공무원, 도민 등 1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열린다. 1부는 사회복지유공자 표창에 이어 기념사, 축사,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윤리선언문 낭독을 통해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옹호와 인간으로서의 고귀한 가치 구현을 추구하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생활(이용)인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뽐

내는 사회복지인 한마음축제가 열린다. 흥익아동보육센터, 일배움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등 10개팀이 나서 악기 연주, 댄스, 합창, 뮤지컬 등의 경연을 펼친다. 대상 1팀에게는 상금 100만원이,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각 1팀에게는 상금 70만원, 50만원, 30만원이 각각 주어진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하고 사회복지의 날로부터 1주일을 사회복지주간으로 제정했다. ★유공자 명단 2면

## 내년 최저생계비 3.4% 인상

1인 가구 57만원 · 4인 가구 155만원

내년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3.4% 올라 4인가구 기준 약 155만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관계자 등 12명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3.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개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각종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된다.

인상률 3.4%를 올해 최저생계비에 반영해 계산한 내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57만2168원 ▲2인 97만4231원 ▲3인 126만315원 ▲4인 154만6399원 ▲5인 183만2482원 ▲6인 211만8566원이다.

내년 '현금급여 기준'은 4인 가구에 127만원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가구원 수별 현금급여 기준은 ▲1인 47만원 ▲2인 79만7636원 ▲3인 103만1862원 ▲5인 150만315원 ▲6인 173만4541원이다.

현금급여 기준이란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급여액을 말한다.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다른 법을 통해 지원되는 텔레비전 수신료 등을 최저생계비에서 뺀 것이다.

소득이 있는 수급자는 이 현금급여 기준에서 해당 가구

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만큼 생계·주거 급여로 받는다.

최저생계비는 3년마다 국민소득 및 지출 수준, 수급권자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조사해 이른바 '계측값'을 정하고 나머지 2년의 경우 여기에 단순히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만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새로 계측값이 설정된 최근 연도는 2011년이었고, 올해와 내년 최저생계비는 이에 불가상승분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현재 최저생계비를 구성하고 있는 생활비 항목은 식료품비(37.7%), 주거비(15.8%), 교통통신(10.2%), 광열수도(7.4%), 일상소모품(5.9%), 보건의료(4.5%), 피복신발(4.1%) 등이다.

### 지면소개

- 종합 ..... 2·3면  
"자활사업 자립지원체계구축해야"  
시설 탐방-제주사정신건강센터
- 사회복지소식 ..... 4·5면  
아동들, 신나는 낙농체험  
행복한 동행 '나눔의 날' 개최
- 오피니언 ..... 6면  
칼럼 · 시론 ·기고
- 특집 ..... 7면  
사회복지시설 평가 혁신을 위한 집담회
- 기획 ..... 8면  
이웃사랑 자원봉사-한울근로봉사회  
사랑의상품기부-강연희씨

## 9월 사회복지시설 · 단체 행사

※ 다음호에는 10월 행사 소식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알리고 싶은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메일(news@hanmail.net) 또는 팩스(702-3383)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생활계시판 알림-행사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702-3784(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팀)

| 시설·단체명          | 행사명                     | 주요내용                    | 일시·장소                             | 문의       |
|-----------------|-------------------------|-------------------------|-----------------------------------|----------|
| 약천사 자광원         | 행복나눔 바자회                | 바자회, 공연, 체험코너 운영 등      | 15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자광원 앞마당        | 738-5055 |
| 제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 제7회 사회복지 제주지역대회         | 주제발표, 민·관 타운미팅 토론       | 5일 오후 2시 미래컨벤션센터                  |          |
|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빛누리실버연극단 공연             | 찾아가는 무료 연극 공연           | 9월 17일 ~ 11월                      | 757-3400 |
|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 2012 추석절 사랑나눔 활동        | 도내 위탁가정에 부식류 및 학용품 등 지원 | 21~28일                            | 747-3273 |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 2012 KT제주배 전도장애인 IT경진대회 | IT경진대회 본선 및 시상식         | 4일 낮 12시 ~ 오후 5시 KT제주본부 1층 컴퓨터교육장 | 702-0295 |
| 제주종합사회복지관       | 토요아카데미 '즐거운 토요일'        | 세계자동차박물관 관람             | 22일 세계자동차박물관                      | 753-2740 |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9월 사회복지 교육              | 자원봉사 신규인증요원 양성교육 등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jejubokji.net) 참조    | 702-3784 |

# “자활사업 맞춤형 자립지원체계 구축해야”

## 자활사업 참여자 월 평균 임금 대부분 80만원 미만 고승한 연구위원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해야”

저소득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개인적 특성과 역량에 적합한 맞춤형 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발전연구원 고승한 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자활사업의 생활형태와 의식 변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고 연구위원이 4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했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2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한 결과 참여자의 월평균 임금이 대부분 8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50만원 미만 0.5%, 50만원 이상~60만원 미만 2.3%, 60만원 이상~70만원 미만 11.9%, 70만원 이상~80만원 미만이 72.1%

이었다.

나머지는 80만원 이상~90만원 미만 9.6%, 9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4%, 100만원 이상 2.3%였다.

이들 중 48.6%가 자신이 받는 임금 수준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15.1%에 그쳤다.

또 66.4%는 자신이 가정에서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답해 낮은 소득 때문에 빈곤을 벗어나기 어려운 형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의 51.3%만이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힘든 일을 못하거나(35.5%), 직업을 갖거나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10.2%)로 건강이 좋지 않아 이종고에 놓여 있는 상태다.

자활사업에 참여한 이후에도 전체의 84.4%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형태에 변화가 없었고, 9.2%는 비수급자에서 수급자로 악화됐다. 수급자에서 비수급자로 나아진 사례는 6.4%뿐이었다.

자활사업 참여 분야는 간병가사돌봄 20.2%, 폐기물 재활용 12.1%, 친환경 영농 6.9%, 반찬 만들기 6.5%, 청소 5.6%, 외식 4.8% 등이다.

고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개인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탈수급과 자활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및 관리 방식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활근로 참여자의 새로운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기술·직무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 제주시 어린이집

### 건강 주치의제 도입

영유아의 각종 질환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역 보건소와 의료기관 한 곳이 한 곳의 어린이집을 맡는 ‘어린이집 건강 주치의제’가 도입됐다.

제주시는 지역내 보건소와 의료기관 간 협약을 체결해 영유아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 주치의제’를 도입, 8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가 주기적으로 어린이집을 방문, 질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진료와 연계한다는 것이다.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은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시는 우선 평가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내년부터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스쿨룩스대리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공로상 △김미숙(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봉사상 △강행욱(손뚝모아봉사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표창 △박정숙(제주케어하우스) △강연미(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박미선(제주정신요양원) △부덕준(꿈꾸는공부방지역아동센터) △김현진(천사의집)

희재(은성종합사회복지관) △이현화(서귀포시사랑원) △김아림(소망요양원) △최은주(홍익아동복지센터) △박홍성(한국이용사회서귀포시지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표창 △김경환(제주영송학교) △박형수(작은세상봉사단) △장재완(길직업재활센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감사장 △김진희(꿈꾸는공부방지역아동센터) △문영하

## 탈락 위기 기초수급자 251가구 구제

### 제주시, 부양의무자와 관계 단절 등 인정 자격 유지

제주시는 탈락 위기에 놓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수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급여가 감소할 위기에 처한 251가구, 419명에 대해 구제했다.

구제 대상자 유형을 보면 부양의무자와 장기간 단절되거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사례가 153가구, 246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신규로 기초수급자를 신청한 가구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판단해 수급자로 보장한 사례도 93가구, 168명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공부상 자동차가 본인 소유로 등재돼 있으나 실제 운행하지 않는 경우도 5가구, 5명으로 파악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들을 선정하다 보니 억울하게 수급자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며 “현장 조사를 통해 기초수급자들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과 제도에 너무 얽매어 보장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탈락 위기에 놓였던 기초생활수급자 292가구, 592명을 구제한 바 있다.



## 발마사지로 ‘효’ 실천

제주시 용담1동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여름방학을 맞아 8월 8일 지역 경로당을 찾아 노인들에게 발마사지를 해 주며 효를 실천하고 있다.

제주시 용담1동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여름방학을 맞아 8월 8일 지역 경로당을 찾아 노인들에게 발마사지를 해 주며 효를 실천하고 있다.

## 아이사랑행복카드가맹점 증가

출산 장려 시책 중 하나인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가맹업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아이사랑 행복카드 가맹업체 수는 970개로, 지난 2010년 509개 업체, 지난해 830개 업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출산 및 육아용품 업체를 비롯해 학원, 교육시설, 서점, 음식점, 마트 등 다양한 업체가 가맹업체로 가입돼 있다.

카드 발급 대상은 세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 자녀가 1997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과 셋째 자녀 이상을 임신한 가정으로 발급 희망자는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카드 이용자는 가맹점에서 5~50%의 약정된 할인 혜택과 2~3개월 무이자 할부 등의 혜택을 받는다. 현재 이 카드를 발급받은 제주시민은 37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 출산·육아용품 대여 인기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 6월 말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있는 출산·육아용품대여센터에서 이용자들이 용품을 대여한 건수는 총 2210회로 지난 한해 총 대여건수(1651회)를 초과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최근 제주시 주민 2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만족도 조사에서도 9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출산·육아용품 대여센터는 지난 2010년 11월 아이낳기 좋은세상 제주운동본부 주관으로 첫 선을 보였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장난감 대여사업까지 확대했다.

물품대여 희망자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제주운동본부(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문의=742-0456

## 사회복지 유공자명단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강경림(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고경희(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시립희망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 △이영삼(사랑의집) △김정아(제주춘강의원) △김희정(감산지역아동센터) △강윤철(제주정신요양원) △고영봉(좋은인연봉사회) △고



시설함방

(58)제주시정신건강센터

# 지역주민 위한 정신건강 길라잡이

정신건강 상담 · 교육 · 재활 프로그램 등 운영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에 앞장

제주시정신건강센터(센터장 박준혁)는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자살 충동이나 위기를 체계적으로 상담 관리하는 기관이다. 제주시 제주보건소 2층에 자리한 이 센터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00년 2월 문을 열었다. 주민의 정신건강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센터를 8월 21일 찾았다.

정신질환은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다. 평생동안 정신질환을 한 번 이상 앓는 사람이 10명 중 3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을 정도다.

정신질환은 이제 더 이상 숨겨야 할 병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신질환 치료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여전히 방치되는 경향이 많다. 환자와 보호자들도 '정신병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숨기기에만 급급하고 치료는 뒷전으로 밀쳐두기 일쑤다.

이처럼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사회적 편견과 각종 사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치료를 유도하고 재활 과정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도와주는 곳이 바로 정신건강센터다.

현재까지 전국에 설치된 정신건강(보건)센터는 158개소에 이른다. 제주 지역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지역에 각 1개소씩 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제주보건소가 제주대병원에 위탁해 운영하는 제주시정신건강센터에는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보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모두 7명의 전문인력이 배치돼 ▲지역정신건강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지활(다임톡)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선 지역정신건강사업으로 만성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정신보건 시미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방문 등을 통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비롯해 집단 정신치료, 약물증상 관리, 스포츠 활동, 농아리 운영, 생태체험 등 다양한 주간재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만성정신질환자 중 근로 의욕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재활훈련 기관과 연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30여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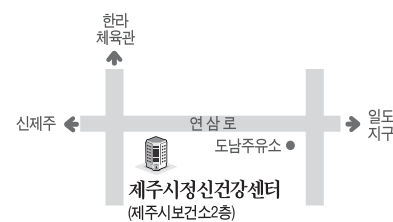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센터에 등록된 인원은 443명으로 여자(241명)가 남자(202명)보다 많다. 연령대별로는 40대(31.2%), 30대(28.2%), 50대(18.3%), 20대(14.7%) 등의 순이었다. 진단 유형별로는 정신분열증 환자가 59.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이 우울증(15.3%)과 소울증(13.8%)이었다.

센터는 정신질환 예방과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신질환자 가족과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상담 업무도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을 위한 24시간 상담전화(1577-0199)를 갖추고 경로당, 복지관 등을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고영숙 제주시정신건강센터 팀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잘못된 인식을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며 "정신과적 문제로 상담받고 싶은 경우 언제든지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의=728-4074~5



## 자존감 향상 위한 '힐링캠프'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8월 23일 상담·치료사업의 일환으로 자존감 향상을 위한 셀프코칭 프로젝트를 '너와 나, 함께하는 힐링캠프'를 진행했다.

서귀포시지역 위기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행사에서는 자아존중감, 사회성 검사를 비롯해 심리치유레크리에이션, 심리운동치료, 볼놀이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행사에 참여한 아동들은 불안감과 낮은 자존감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회복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발산시켜 욕구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저소득층에 문화예술 관람 지원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카드 · 기획바우처 사업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공연, 영화 관람이나 도서 구입비용 등을 지원하는 문화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문화카드와 기획바우처 두 가지 사업으로 나뉜다.

문화카드는 1매당 연간 5

만원 한도 내에서 전국의 공연장, 전시장, 영화관, 서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장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를 통해 티켓이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 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이 이용할 수 있으며, 문화 카드 홈페이지(www.문화바우처.kr 또는 www.cvoucher.kr)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획바우처는 중증장애인과 독거노인, 문화소의 지역거주자 등 카드방식만으로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문화예술 관람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문화드림사업, 재가방문서비스, 문화가치누리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문의=724-9004

## 한부모가족급여 대상자 금융재산 조사 실시

제주시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와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금융재산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8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신청자

와 수급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통해 금융재산을 일괄적으로 조사한다. 조사대상의 금융재산의 범위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를 포함한다.

따라서 요구불예금의 3개월 평균잔액, 저축성예금의 잔액을 비롯해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해약시 보험환급금 등이 조

사된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는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가구로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자녀학비), 생활보조금 등이 지원된다.

제주시는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도 11월 말까지 동의서를 받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장애아동에 보조기구 지원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센터장 양예홍)는 ㈜에쓰오일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8월 16일 학령기 장애아동과 청소년 4명에게 1인당 150만원 상당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전달했다.

지원 대상자는 지난 5~6월 공모를 통해 접수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상담 및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보조기구 지원사업에는 많은 장애인 부모들이 관심을 보였다.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는 이번에 무료로 지원한 보조기구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소에게 먹이도 주고 치즈도 만들고...”

아동들, 신나는 낙농체험...제주종합사회복지관 주최  
문화체험 기회 제공하는 '즐거운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윤호)은 제주시지역 결손빈곤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8월 25일 제주시 월평동에 있는 아침미소 농원목장에서 낙농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활동은 아동들의 문화체험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교육적, 정서적 지원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인 '토요아카데미 즐거운 토요일'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농원목장은 젖소 우유짜기와 치즈 만들기 등의 낙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아동들은 젖소의 소화과정과 우유 생산 과정을 배우고 소에게 직접 건초를 먹이기도 하고 송아지에게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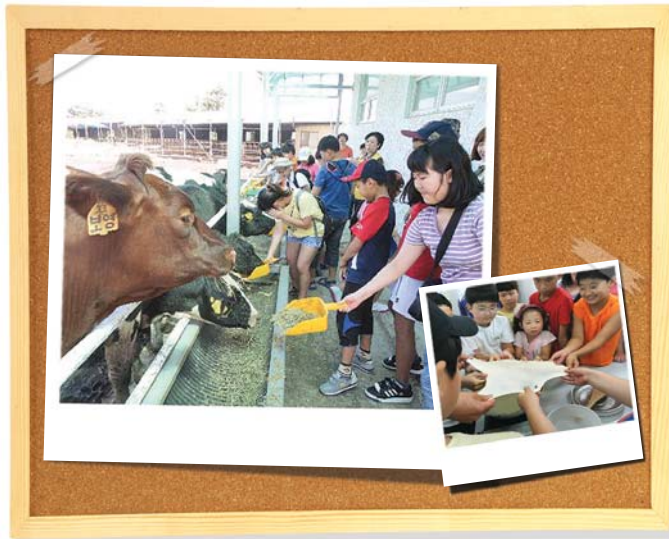
유를 주기도 했다.

또 우유로 직접 아이스크림과 치즈를 만들어 먹어보기도 했다.

낙농체험에 참가한 초등학교 2학년 김모군은 “소에게 4개의 위가 있으며, 아랫나가 없어 물어도 아프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우유로 아이스크림과 치즈를 만들어 먹어보니 맛도 좋고 재미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체험활동에는 암웨이 제주지부 봉사단 7명이 함께 참여해 아이들의 안전지도를 도왔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윤은혜 사회복지사는 “도시에서 아이들에게 자연 공간에서 소에게 직접 먹이를 주고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이 8월 25일 농원목장에서 실시한 낙농체험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소에게 먹이를 주고 치즈를 만들고 있다.

우유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낙농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문화체험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들의 여가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월 1회 교육문화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위탁아동 자립지원 여름캠프  
Daum과 함께하는 IT ProBono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는 (주)다움커뮤니케이션(대표 최세훈)과 함께 8월 17~19일 2박 3일간 'Daum과 함께하는 청소년 IT(정보기술) 프로보노 ProBono' 행사를 실시했다.

'IT ProBono'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청소년들에게 영상미디어 제작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다음의 특화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위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여름캠프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중·고등학생 등이 참여해 영상미디어 교육과 영상기획, 촬영, 편집 과정을 배우고 UCC(사용자제작 콘텐츠)를 직접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 소/식/마/당

제장복, 장애인다문화 가정 희망드림 가족캠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은 장애인다문화 가정 역량강화를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8월 11일부터 1박 2일간 제주뉴코리아리조트에서 '희망드림 가족캠프'를 실시했다.

장애인다문화가정 7가구가 참여한 이번 캠프에서는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아동만들기 체험, 물놀이, 가족요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창암교육활동센터, 산지천서 악기 연주회



창암교육활동센터(원장 임상필)는 7월 27일 제주시 산지천광장에서 악기 연주회를 개최했다.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을 지원받아 실시한 이번 연주회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교류하는 기회가 됐다. 이날 광장 주변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차를 무료로 나눠주는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애덕의집, 즐거운 물놀이 체험



제주애덕의집은 7월 24일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귀포시 남원을 용암해수욕장에서 '야호! 바다야 놀자' 행사를 실시했다.

이용자들은 풀장에서 물장구를 치고 미끄럼틀을 타면서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에는 SK천사단, 제주유나이티드, 제주광어시렁부 등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참여했다. 남원성당에서는 이날 참가자들에게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했다.

순복음복지관, 창의사회 캠프 진행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은 8월 6~7일 1박 2일간 지역아동 40명과 함께 '제3회 창의사회 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에서는 복권기금 문화나눔의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과 연계해 '춤추는 태양'이란 제목의 뮤지컬 관람 기회가 제공됐으며, 제주은행 동문지점과 H마트가 후원했다.

장애인요양원, 아쿠아플라넷제주 관람



제주장애인요양원은 8월 4일 국제라이온스협회 제주중앙라이온스클럽의 지원을 받아 요양원 이용자와 가족들과 함께 동양 최대 수족관인 '아쿠아플라넷 제주'를 관람했다.

이용자들은 이날 수족관에서 500여종의 동식물을 관람하고 해녀물길 공연과 싱크로나이즈 공연도 관람했다. 요양원 측은 다양한 볼거리를 보고 점심식사도 하면서 잊지 못할 추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장애인부모회, 장애아가족 체험학습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회장 한복금)는 8월 2~3일 장애아가족 사회적인 체험 학습 프로그램인 '해피(Happy) 패밀리(family) 3'를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장애아가족 60여명이 참여해 부산과 경주 일대에 있는 LG사이언스홀, 아쿠아리움, 경주월드랜드 어뮤즈먼트 등을 관람했다.

봉아름지역아동센터  
환경예술 학교 참가



봉아름지역아동센터(시설장 임진희)는 8월 16일 한국메세나협의회에서 실시한 '한화와 함께하는 에코 아트 스쿨(Eco Art School)'에 참가했다.

센터 아동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채로운 미술 체험을 하고 물놀이 체험을 했다.

한빛지역아동센터  
위터파크서 물놀이체험



한빛지역아동센터(시설장 주종훈)는 최근 여름방학을 맞아 야간보호대상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물놀이체험장인 위터파크에서 '추억에 남는 시원한 여름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장소를 위터파크로 정한 것은 아이들이 여름철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선택한 데 따른 것이다. 아이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물놀이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행복한 동행 ‘나눔의 날’에 참여하세요”

오는 22일 월드컵경기장 광장서 나눔장터 등 운영  
서귀포시사회복지협의체, 수익금은 불우이웃 돕기



▲서귀포시사회복지협의체가 주최하는 ‘행복나눔의 날’ 행사가 오는 22일 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행사 모습.

나눔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행복 나눔의 날’ 행사가 9월 22일 서귀포시 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열린다.

서귀포시사회복지협의체(공동위원장 김재봉·이상구)가 주최하는 이날 행사는 ‘나

눔은 기쁨, 행복한 동행’이란 주제로 나눔장터, 복지테마관 등이 운영된다.

나눔장터에서는 시민들이 기부한 생활용품, 의류, 신발 등 재활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복지테마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사업 홍보, 생신품 판매, 장애유사 체험, 무료 건강검진, 심폐소생술, 호두과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또 부대행사로 노인팀, 청소년팀, 아동 및 다문화가족팀 등이 다양한 재능을 선보이는 공연도 펼쳐진다.

나눔장터 운영을 통해 판매한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인다.

사회복지협의체는 지난해 이 행사를 통해 250만원의 수익금을 올려 지역 중·고등학교 9명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사회복지협의체 관계자는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나눔과 기부를 통해 지역의 복지자원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장애학생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서장복, 전문가 초청 눈높이 맞춤형 교육

서귀포시장래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은 9월부터 ‘장애학생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아 실시되는 이 사업은 장애학생 권리 탐색교실, 장애인복지 세상 여행하기, 학부모장애이해 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됐다.

장애학생 권리 탐색교실은 자기옹호기술, 지원망 구성 기술 등 장애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친구들과 또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짜여졌다.

장애인 복지세상 여행하기는 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10가지 이상 테마로 구성된 교육을 통해 장애 학생과 비

장애 학생간 괴리감을 없애고 유대함을 형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학부모장애이해 교육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차별 금지를 위한 교육과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강화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에는 장애인복지전문가 등이 강사로 나서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은 초등, 중등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서귀포시장래인종합복지관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학생의 권리 증진은 물론 장애,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학교 공동체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징검다리 가족봉사단 발대식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회장 한봉금)는 지난 6월 14일부터 장애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아카데미 프로그램인 ‘우크렐레’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12월 19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교실에는 장애아 부모 12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향후 공연을 열 예정이다.

## 농촌일습 돕기 등 봉사활동



서울지역 자원봉사단체인 ‘행동하는 양심’은 8월 6일부터 10일까지 제주도 동부지역에 머물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자원봉사자 9명이 참여해 독거노인 가정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우도해안가 정화활동, 농가 일손돕기,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1박 2일 캠프 등을 실시했다.

##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 경제캠프’

은성종합사회복지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8월 13~14일 이틀간 ‘어린이 경제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미래의 소비주체인 어린이들이 올바른 생산과 소비를 통해 돈의 소중함과 관리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제주도 아라지구내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 2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금융교육, 농업박물관 견학, 환경교육, 폐품을 활용한 재활용품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 농수산물 공판장 등지를



둘러보며 제주 1차산업 유통과정을 배우고 벼룩시장에서 직접 물건을 구입하기도 했다.

은성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비록 이틀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돈의 소중함과 올바른 소비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 요양시설 대상 스트레스 해소 교육

### 제주도노인보호전문기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도내 15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설노인학대 예방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날려버려, 스트레스’란 주제로 열리는 이 프로그램은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스트레스관리 등 2가지 교육이 이뤄진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요양보호사는 “요양원에서 일을 하다보면 스트레스가 쌓일 때가 많다”며 “스트레스도 풀고 충전도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 자미성, 천기저귀만 사용

노인전문 의료요양시설인 내친구가 사는 집 자미성(원장 현갑열)이 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위해 일회용 기저귀 대신 천 기저귀만을 사용, 눈길을 끌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설에서는 대소변 조절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이 편하고 처리하기도 편한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하지만 자미성은 천 기저귀를 사용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도 챙기고 자연환경도 보호하고 있다.

자미성은 일회용 기저귀 구입으로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을 어르신들과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투자하고 있다.

## 아라종합사회복지관, 물놀이 체험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저소득결손가정 아동·청소년 17명을 대상으로 8월 20일 위터월드에서 물놀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물놀이체험은 복지관이 운영하고 있는 아간돌보미 사업 프로그램이다.

토털 컨택 서비스 기업인 KTCS 제주사업단(단장 이안식)에서 프로그램 비용 전액을 지원했다.

KTCS 제주사업단은 지난 7월부터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웃음치료, 소핑체험 등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해주고 있다.

지난 5월 24일에는 아라종합사회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식장을 찾아 어르신들의 정서함양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만원의 기탁하기도 했다.

이 물놀이체험은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고 있는 나이트케어(night care)사업(아간돌보미) 프로그램이다.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8월 식품 기탁자**

▲(주)금강축산유통=육류 723.5kg ▲김치원=김치 50kg ▲구암굴사 제불지일동=쌀 등 50만원상당 물품 ▲빵띠아모=빵 21봉 ▲삼다유통=삼다수(2L×6개)300팩 ▲서문식품=두부 432모, 콩나물 120봉 ▲아산재단=쌀 200kg ▲이든이네=멸치 3kg ▲이여도지역자활센터=유기농채소 249kg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생필품류 22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2L×6개)150팩 ▲몽생이그룹홈=이불 10채



## 사회복지협의회 2012년 7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 구분      | 후원금수입     | 후원금 사용액    |
|---------|-----------|------------|
| 재가결연후원  | 530,000   | 530,000    |
| 난치병환아후원 | 70,000    | 0          |
| 자원봉사후원  | 350,000   | 350,000    |
| 복지사업후원  | 1,025,000 | 523,980    |
| 푸드마켓후원  | 3,430,000 | 10,704,900 |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칼럼

## 아우라(AURA)



김길웅  
수필가·시인

“‘아우라’가 느껴지는 사람이 확실히 있다. 우리는 훌륭하고 존중할 만한 이론을 가진 인물보다는 이유도 모르지만 어찌된 노릇인지, 모습이며 말투며 일거수일투족에 마음이 이끌리는 사람에게 더 강한 ‘아우라’를 느끼게 된다.

아우라가 있는 사람은 폭포 밑에서 도를 닦는다거나 하는 유별난 일을 벌이지 않더라도 전설을 만들어 낸다.” 무라카미 류의 「무취미의 권유」중에 나오는 말이다.

## 우리 사회에 아우라는 있는가

‘아우라(AURA)’란 어떤 사람이 나 장소에 서려 있는 특별한 기운, 후광, 광채 등을 뜻하는 그리스어다. 부처의 머리나 등 뒤에서 내비치는 둥근 빛을 일러 원광(圓光)이

라 하는 그 빛, 이를테면 껍질이 아닌 내면의 빛을 말한다. 분 발라 찍는 화장이나 치장 따위로는 만들 수 없는 내면의 고결하고 초긍정적인 기운이 빛으로, 카리스마로 표출될 때 비로소 아우라가 나타난다. 한 사람의 아우라가 전설을 만들어 낸다.

왜 그럴까. 요즘 아우라라는 말에 한없이 마음 끌린다. 그럴 만큼 충분히 매혹적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역사의식 속 빈곤감, 정신의 허기에서 오는 것인지 모른다. 질문으로 이어진다. ‘우리 사회에 아우라는 있는가.’ 답이 군색해지면서 회의의 늪 속으로 빠져든다.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었던 지도자들, 면면을 떠올리면 한순간에 입맛이 떨어진다. 역대 대통령들, 타계했던 생존해 있던 그 이름에 광채를 띤 어른이 한 분이라도 있거나 한가.

학생 의거에 몰려 해외로 망명했다 관에 덮여 조국 땅을 밟은 분, 근대화로 국민을 적민으로부터 해방시켰음에도 불행한 최후를 맞은 분, 군사독재로 군림한 것도 그런데 추징금을 외면하려는 폼수로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면서 손녀 결혼식을 역대 호화판으로 치르는 낯 두꺼운 분, 자식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나머지 비리와 불법을 저질러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준 분, 곡절이야 여하튼 생존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해야 함에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내던진 분, 실정에도 이권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형님의 수뢰 혐의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분.

어쩌면 예외 없이 이리도 한결 같을까. 실망에 더해 참담한 심경을 누를 길이 없다. 그들은 그만한 철학도, 역사적 인식도 없었던 것이며, 우리는 그들의 실체도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았던 것인가. 가슴 찡 일이다. 안타깝고 어처구니없다. 답답하고 민망한 심사를 가눌 수가 없다. 그러고도 역사 앞에 떳떳할 수 있을까.

## 이 땅에 진정한 지도자는?

대선을 몇 달 앞둔 시점이다. 우리 모두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 땅에 진정한 지도자는 없는 것인가. 청렴한 사람, 다양성을 품은 오픈마인드와 민생을 챙길 경영마인드의 소유자, 국민들에게 미래비전을 제시해줄, 그리하여 국격을 한 차원 끌어올릴 그런 인물은 없는가.

절치부심, 이번에는야말로 참된 지도자를 만나야 하리라. 마음의 눈을 씻고 찾을 일이다. 아우라가 우러나오는 그런 사람들.

## 시론

페이코원칙과  
우려되는 복지재정

한영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처장

최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여러 나라들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재정적자 규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는 한때 지불유예를 선언하거나 공무원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부채상황이 심각수준에 이르는 자치단체도 여러 곳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그동안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뒤로 한 채 방만한 재정운용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재정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빚을 내서 대규모 도로·철도·강 등의 토목건설인프라사업을 추진하고 때로는 BTL이나 BTO사업을 벌여놓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감세정책까지 단행해 재정적자를 더욱 키우고 있다.

## 균형적인 재정혁신 방안 제시해야

이 같은 결과로 인해 2012년 5월 기준 기획재정부가 밝힌 국가부채규모는 774조원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방정부 부채 102조 원과 공기업부채 463조 원이 빠져 있다. 이를 합치면 1천339조 원에 이른다. 이는 2011년 우리나라 명목GDP 1천237조 원을 넘고 있다. 국가가 국민이 벌어들이는 연간 총 명목소득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이처럼 자치단체 등 국가 재정위기 상황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 정책을 가동하고 있다. 작년 4월부터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설립해 운영하고, 12월부터는 ‘장기재정전략회의’를 구성해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들 기구들이 내놓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은 ‘복지지출 확대가 곤란하다’는 의견으로 집약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의 이유를 보면 ‘재정준칙’, 더 나아가 ‘페이코(PAYGO)원칙’ 도입방안을 꺼내두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준칙은 국가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전체적인 재정지표에 구체적인 목표수치를 법으로 정해 놓고 이에 맞춰 수입과 지출, 그리고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페이코원칙은 재정지출 가운데 의무지출을 억제하는 제도다. 의무지출은 재정지출 계획을 세울 때 행정이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재량지출이 아니다. 즉 재량지출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법이나 조례 규정에 따르거나, 또는 고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이다. 이런 의무지출 가운데에는 복지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만약 정부나 자치단체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페이코원칙을 도입할 경우에는 이는 복지지출 억제를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대규모 토목사업 등을 통해 방만하게 운영해 온 재정운용의 부실을 복지지출억제방안을 통해 해결하려는 속셈이다.

특히 자치단체별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세미나를 추진하면서 일부에서는 페이코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정책에 따라 지역의 여론추이를 살펴보기 위한 방안으로 개척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우리나라 복지수준과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 등 다양한 현실적 과제를 등한시한 채 페이코원칙을 꺼내든 것은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런 편향적인 과제보다는 비효율적인 토건사업 등 재량지출 개혁방안과 새로운 복지수요에 걸 맞는 세수확충 등 균형적인 재정혁신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할 시점이다.

## 기고

## 희망과 감사



고선희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오지마! 너희들이 와서 생활이 흐트러졌어.” 할아버지께서 화가 많이 나셨다.

대상자는 이제 일흔이 넘으셨고 아흔이 넘은 노모를 모시고 있으며, 노모는 치매를 앓고 계신다.

본인도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한데 노모를 모시는 일이 여간 힘들어 보여 도움을 드리고 싶어 방문한 우리를 부단히 거부하신다.

할아버지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다른 사람의 방문을 싫어할까,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싫어하는데 계속 방문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혼란스러운 생각이 자꾸 뇌리를 스친다.

한편으로는 사례관리 서비스 일을 하는 우리까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포기한다면 그 분들의 삶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다시 힘을 내기로 하였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이 어려워 주변의 도움을 청하기로 하고 무작정 의사 선생님께 대상자의 상태를 의뢰했더니, 흔쾌히 병원 업무가 끝나고 함께 동행해 주셨고, 교회의 전도 사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어렵던 장기요양보험 신청도 하였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 관리 등 서비스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공공?민간의 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으로 새로운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 하겠다고 제주도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일을 시작한지 4개월.

그동안 사회복지업무를 하면서 만나보지 못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많다.

치매로 인해 혼자 생활하며 일상생활이 안돼 돌봄이 필요하나 주거방문을 거부하는 할머니, 알

코올로 인해 119로 병원 이송을 수시로 하나 병원 입원치료 및 기관 상담을 거부하는 아저씨, 정신 질환으로 전기, 수도도 이용하지 않고 생활용수를 이용하여 생활하는 아줌마 등 다양한 대상자들을 만난다.

이처럼 도움이 필요한데도 여러 가지 질병들로 인해 도움을 거부하거나, 도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접근이 어려운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직 대상자들에게 확실한 도움도 드리지 못한 채 시간만 지나가는 것 같은 아쉬움도 있지만, 주변에서 고맙게 자원봉사를 해주신 분들이 있기에 작지만 조금씩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인다.

제주시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 시책을 개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행정의 힘만으로는 늘 부족함을 느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체감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사회복지시설 평가 혁신을 위한 집담회

# “경쟁 대신 공생으로 평가를 혁신하자”



▲사회복지시설 평가 혁신을 위한 집담회가 8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층 삼다수홀에서 열린 가운데 양원석 푸른복지사무소장이 평가제도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설별 직원 수나 특성,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를 매기다보니 지역 욕구에 맞는 사업보다는 실적 위주의 사업에 치중하게 되고 시설간 서열화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평가제도 및 지표 구성에 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점수제를 통한 서열 등급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동한)는 8월 22일 오후 협의회 2층 삼다수홀에서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평가 혁신을 위한 집담회를 개최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집담회는 최근 사회복지 현장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양원석 푸른복지사무소장은 현행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양 소장은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가 사회복지시설의 전문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점수제로 인한 서열이 생기고 등급이 매겨지면서 시설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열에 따른 예산(인센티브) 차등 지원은 시설간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좋은 사업은 독점하게끔 유도함으로써 오히려 복지계 전반의 전문성 향상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기준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규정한 사회복지 서비스 최저기준과 달리 평가 범위가 너무 넓은 데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해 현장과 동떨어진 평가 범위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게 양 소장의 설명이다. 때문에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대 요구에 창의적으로 대응하는데 걸림돌로 대두되고 주민을 위한 본연의 업무보다 평가 서류 작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한 평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상시독립기구를 설치하고 상시 평가인력을 뒀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실무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제도화할 것을 주문했다.

양 소장은 “현재 복지부의 각 부서마다 최소서비스 기준안을 만들고 있다”며 “가능한 평가지표를 슬림화하고 직능단체별로 해당 부서와 접촉해 평가지표 개선안에 대해 적

평가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평가제도 때문에 평가에 맞춰서 일하는 경향이 있다”며 “시설별로 구조적이고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 차별화된 평가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관 관계자는 “복지관 유형이 가형, 나형, 다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평가지표는 똑같다”며 시설별 특성을 감안해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그나마 복지관은 사업 실적을 잡기가 수월하지만 생활시설인 경우 삶 자체가 사업인데 이를 일률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참으로 서글프다”며 “평가위원들조차 그 실상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페이스북(www.facebook.com)에서는 ‘평가를 혁신하자’ 그룹이 운영되고 있으며, 평가제도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시설별 점수 매겨서열화...과도한 경쟁 등 부작용 초래

## 양원석 소장 “복지서비스 최저기준 도달 여부로 평가해야”

그는 “점수제 평가는 가치와 태도를 중요시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특성에 부적합하다”며 이로 인해 지역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보다는 수치화 또는 점수 따기에 유리한 사업에 치중하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사업은 자연히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복지 수혜대상인 주민보다는 평가를 우선시하는 현상으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과 동시에 회의감을 느낀 사회복지 전문 인력마저 이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부적절한 평가 범위와

양 소장은 이에 따라 평가제도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이원화평가 ▲평가제도 및 지표 구성에 실무자 참여 확대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이벤트 마련 등 3가지안을 제시했다.

우선 현행 상대평가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꾸고 서열 등급을 폐지하는 대신 사회복지 서비스 최저기준 도달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만약 최저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시설에서 이의 제기와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시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쟁 대신 공생으로 평가를 혁신하자’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집담회에서 참가자들은 과도한 서열화 경쟁을 부추기고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한







연중 기획

## '이웃사랑 지원봉사'

▶ (7)한울간병봉사회

# 목욕봉사에 밀반찬 배달 · 미용봉사까지...

회원 수 늘어나면서 봉사 영역도 점점 넓어져

어려운 이웃 위한 왕성한 봉사활동으로 귀감

‘환자 목욕봉사에다 밀반찬 배달, 급식봉사, 이·미용봉사까지...’

한울간병봉사회(회장 변명호)의 봉사활동 영역은 그야말로 다양하다. 봉사회의 스케줄은 대략 이렇다. 매주 월요일에는 제주의료원을 찾아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목욕봉사를 실시하고 화요일엔 노인대학원에서 무료 급식봉사를 하며 구슬땀을 흘린다. 수요일엔 가정형편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에 밀반찬을 배달해 준다.

제주국제공항도 수시로 찾는다. 택시 승차장에서 질서를 지키도록 유도하고 관광객들의 길 안내를 돕는다.

이들의 봉사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매월 경로당,

노인회관 등을 찾아 어르신들의 머리를 예쁘게 손질해 주는 가 하면 한바탕 민요 공연까지 펼친다.

탈라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과 함께 매달 한 차례 민속오일장을 찾는 것도 봉사회의 몫이다. 바깥나들이가 불편한 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오일장 곳곳을 누빈다. 심지어 필요한 물품을 사라고 상품권까지 지원해 준다. 장애인들이 오일장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다.

정기 봉사활동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있다. 제주의료원 환자들을 위해 생신잔치를 마련해 주고 어버이날에 장애를 가진 노인에게 카네이션 달아주는 게 그것이다.

한울간병봉사회는 지난

2000년 5월 창단한 베타랑 봉사단체다. 제주의료원에서 간병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봉사회를 꾸렸다. 당시만 해도 회원은 20여명에 불과했다. 봉사회는 이름 그대로 간병봉사에 중점을 뒀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나들이를 도와주고 목욕을 시켜주는 등 굵은 일을 도맡아 처리해 왔다. 가족도 아닌 생면부지의 환자를 돌본다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지만 회원들은 힘든 내색조차 없이 묵묵히 봉사활동에 전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회원들의 열정만큼이나 봉사회도 번창했다. 현재 봉사회에 등록된 회원은 모두 500여명. 이 중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은 대략 160여명이다.

회원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봉사활동 영역도 넓어졌다. 회원들의 전문성과 끼를 살려 봉사활동에 접목시킨 것이다. 이·미용 봉사와 민요 공연이



▲지난 2000년 창단한 한울간병봉사회는 의료원 환자 목욕봉사, 무료 급식, 밀반찬 배달 등 왕성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 사례다.

다방면에 걸친 왕성한 봉사활동은 그 명성이 자자할 정도다. 그동안 봉사회가 받은 상만 해도 행정자치부 장관상, 자원봉사단체 대상, 장애인도우미 대상 등 숏하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 왔다는 얘기다.

이처럼 봉사회가 모범적인 봉사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변명호 회장의 공이 컸다. 봉사회 창단을 주도한 변 회장은 그 때나 지금이나

바쁘기는 매 한가지다. 10년 넘게 회장직을 맡아 봉사회를 이끌어왔다. 봉사 자체가 그의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는 봉사회가 무력무력 성찰할 수 있었던 데는 회원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단언했다.

변 회장은 “순수하고 열정적인 마음을 가진 회원들에게 그저 고마울 따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외받고 고통받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 '사랑의식품을 이웃과 함께'

▶ (3)강연희 김치원 대표



▲제주시 일도이동에서 김치원을 운영하는 강연희씨가 사랑과 정성을 담아 김치를 버무리고 있다.

“비록 큰 기부는 못하지만 제 힘이 닿는 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치 나눔은 계속할 겁니다.” 맛있는 김치를 통해 따듯

한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강연희(45·여)씨. 제주시 일도2동 동광초등학교 인근에서 김치공장인 ‘김치원’을 운영하는

# 김치 나눔 전도사 “정성으로 버무렸어요”

푸드마켓에 매주 김치 기부...3년간 1000만원 상당 지원

일본 대학생들도 김치원에서 해마다 김치 만들기 체험

강씨는 기부식품제공 사업장인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매주 김치를 기탁해오고 있다.

강씨가 푸드마켓에 처음으로 ‘김치 기부’를 시작한 건 2009년 10월. 우연히 동네 부녀회장을 통해 푸드마켓의 존재를 알게 된 강씨는 자신이 직접 만든 김치를 푸드마켓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곧바로 실천에 옮겼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김치 나눔’은 벌써 3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매주 10~15kg의 김치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꼬박 꼬박 지원해 주고 있다.

강씨가 지금까지 푸드마켓에 기부한 김치만 시가로 1000만원이 훌쩍 넘는다.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김치는 1kg씩 재포장돼 푸드마켓을 찾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지원되고 있다.

강씨가 만든 김치는 푸드마켓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식품 중 하나다. 가장 좋은 재료를 쓰는 데다 정성까지 가득 담겨 그 맛이 일품이기 때문이다.

강씨는 “직접 밭에서 키워 수확한 배추를 사용해 품질 좋은 고춧가루와 마늘 등을 조달해 김치를 담근다”며 “가장 좋은 재료를 쓰고 정성을 다해 담근다는 원칙을 지킨 덕에 해마다 단골손님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강씨는 지난 2004년부터 김치원을 운영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일도2동 부녀회에서 주최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에 절임 배추를 기부하기도 했다.

김치원이 여느 김치공장

과 확연하게 다른 점은 소비자들이 직접 김치를 만들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이 직접 고춧가루 등 재료를 가지고 오면 김치원은 싱싱한 배추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주부 입장에서는 집에서 번거롭게 김치를 담그지 않아도 되는 데다 자신이 선택한 믿을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김치를 만들기 때문에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어 일석이조인 셈이다.

이런 입소문이 퍼지면서 심지어 일본 대학생들까지 김치원을 찾아 김치 만들기 체험에 나서고 있다.

오사카경제대학 학생들은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여름철이면 김치원을 방문, 직접 김치를 만든 후 가져가고 있다.

지난 2008년 제주시를 빛낸 시민’에 선정되기도 한 강씨는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등 누구나 쉽게 가게를 찾아와 김치 담그기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만들고 싶다”며 활짝 웃었다.